



LA 다저스 류현진이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이날 류현진은 7.1이닝동안 108개를 던져 시즌 5승째를 수확했다.

연합뉴스

윤석민 공이 만만해졌다? “직구 회복되면 좋아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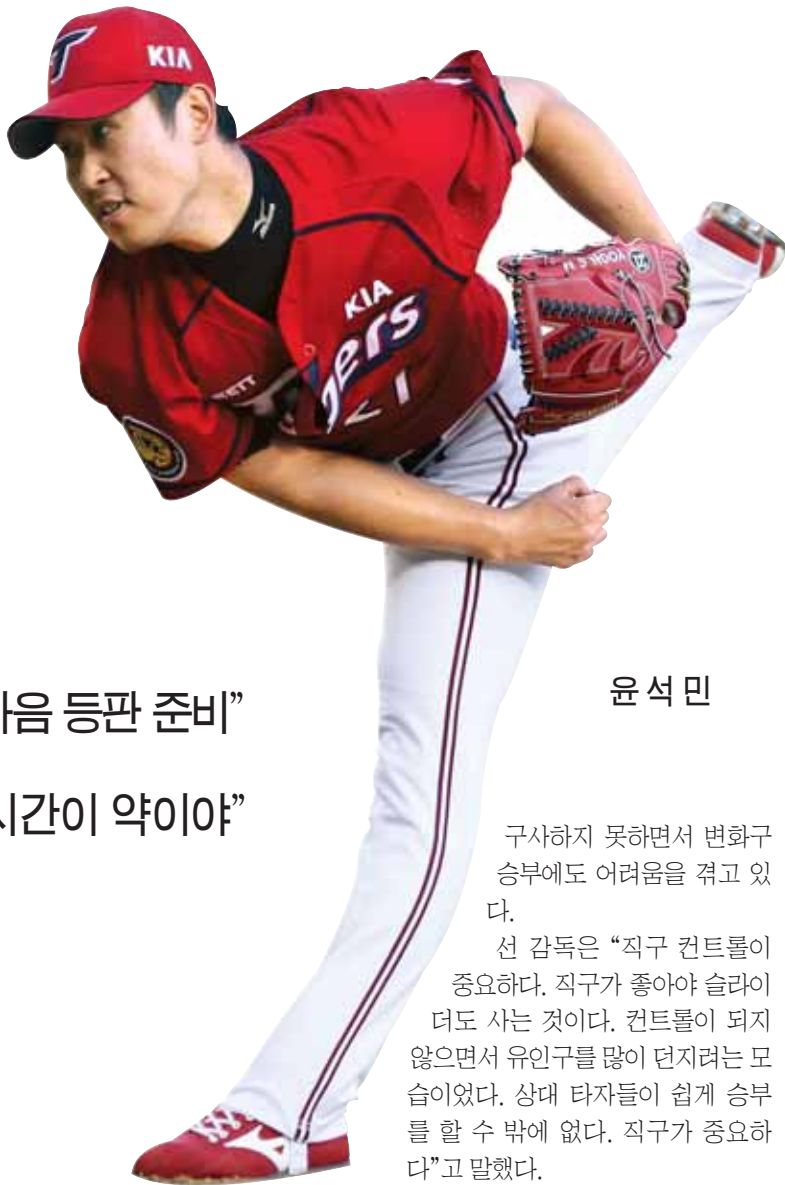
23일 덕아웃을 오가는 ‘패전 투수’ 윤석민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없었다.

윤석민을 얘기하는 선동열 감독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 경기 연속 윤석민이 고개를 숙였지만 KIA 덕아웃 분위기는 “괜찮다”이다.

윤석민은 지난 22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에 나섰다. 지난 16일 SK전에 이어 두 번째 선발 등판에서도 윤석민은 패전투수가 됐다.

기록은 더 좋지 못했다. 첫 선발 등판 성적은 5이닝 5피안타 2볼넷 2실점.



윤석민

구사하지 못하면서 변화구 승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 감독은 “직구 컨트롤이 중요하다. 직구가 좋아야 슬라이더도 사는 것이다.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유인구를 많이 던지려는 모습이었다. 상대 타자들이 쉽게 승부를 할 수 밖에 없다. 직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의 해결책도 역시 시간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윤석민은 스프링캠프에서 ‘선(先) 파워 후(後) 제구’ 방식으로 훈련을 해왔었다. 전력으로 공을 던져 힘을 키운 뒤 연습 경기 등을 통해 제구를 잡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WBC와 부상으로 이 과정이 생략됐다.

윤석민은 “부상없이 야구를 하고 있다는 자제는 너무 행복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물론 내가 가진 능력과 역할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게 많다.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음 비우고 차분히 다음 등판 준비” SUN 감독 “괜찮아. 시간이 약이야”

점, 2회 1사에서 조성우·박진만에게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이후 추가 실점없이 5회를 막으면서 7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두 번째 선발 경기에서는 5회도 채우지 못했다. 4.1이닝 8피안타 3볼넷 3탈삼진 3실점(2자책), 직구 최고 구속은 147km에 그쳤고 회심의 무기인 고속 슬라이더는 139km에 멈췄다. 제구도 흔들리면서 스트라이크 66개, 볼은 39개를 던졌다.

에이스가 일찍 흔들린 KIA는 방망이 마저 침묵하면서 1-3으로 패를 기록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지켜보는 이들의 아쉬움과 실망은 컸다. 하지만 윤석민과 선동열 감독은 아직 느긋하다. ‘시간이 약이다’는 설명이다.

선동열 감독은 “아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동계 훈련도 제대로 못했고 WBC에서도 어깨가 좋지 않아 볼넷 피칭도 하지 못했다. 러닝도 부족했고 앞으로 더 던지다 보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민의 반응도 비슷하다.

윤석민은 “팔이 조금 뭉친 상태였는데 특별히 아프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훈련을 많이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팀에게나 나에게나 중요한 해인데 생각이 많았다. 마음을 비우고 차분하게 다음 등판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민의 진가 발휘에는 ‘직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석민은 150km가 넘는 고속구와 140km를 넘나드는 슬라이더로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우완 에이스가 됐다. 그러나 현재 직구의 구위와 스피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주무기인 직구를 자유자재로

류현진 5승 ‘다저스 최후의 보루’

밀워키전 7.1이닝 2실점 ML 진출 최고 이닝 소화

메이저리그 진출이후 투구수 조절에 애를 먹던 류현진(26·LA 다저스)이 뒤늦게 ‘이닝 이터(inning eater)’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보였다.

류현진은 23일(한국시간) 미국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방문경기에서 7.1이닝을 6안타 2실점으로 막아 시즌 5승(2패)째를 따냈다.

팀에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에 이어 5승 사냥에 성공한 것도 고무적이지만 메이저리그 진출이후 가장 긴 이닝을 소화했다는 점에서 벤치의 신뢰를 쌓을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앞선 9경기에서 총 55.1이닝을 기록해 경기당 평균 6이닝가량을 던졌다.

종전 가장 길게 던진 경기가 4월 23일 뉴욕 메츠전으로 7이닝을 3안타 1실점으로 막았다. 또 데뷔전부터 지난 12일 마이애미 경기까지는 8경기 연속 6이닝 이상을 던져 다저스팀 역사상 최다기록 타이틀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18일 애틀랜타전에서 볼과 5이닝동안 공 100개를 던지고 교체되면서 돈 매팅리 감독이 처음으로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당시 류현진이 볼넷 5개를 기록하며 투구수 조절에 실패하자 매팅리 감독은 “공 100개만 던져 체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류현진美프로야구 등판일지

류현진 승패	경기일자	경기상대팀	투구내용	팀승패결과
패	4월3일	샌프란시스코(다저스타디움)	6이닝 10피안타 5실점3볼넷 1자책점 무사4구투구수 80개 / 0-3패	
승	4월8일	피츠버그(다저스타디움)	6이닝 3피안타 1피홈런2실점 2볼넷 6탈삼진투구수 101개 / 6-2승	
승	4월14일	애리조나(세이시필드)	6이닝 6피안타 1볼넷9탈삼진 3실점투구수 107개 / 7-5승	
승(패임)	4월21일	볼티모어(오라클파크)	6이닝 8피안타 2피홈런5실점 2볼넷 6탈삼진투구수 95개 / 5-7패	
승(패임)	4월26일	뉴욕 메츠(시티필드)	7이닝 3피안타 1실점3볼넷 8탈삼진투구수 109개 / 3-2승	
승	5월1일	콜로라도(다저스타디움)	6이닝 3피안타 2실점2볼넷 12탈삼진 투구수 105개 / 6-2승	
패	5월6일	샌프란시스코(AT&T 파크)	6이닝 8피안타 4실점2볼넷 2탈삼진투구수 85개 / 3-4패	
승	5월12일	마이애미(다저스타디움)	6이닝 5피안타 1피홈런1실점 3볼넷 3탈삼진투구수 114개 / 7-1승	
승(패임)	5월18일	애틀랜타(터너 필드)	5볼넷 5탈삼진 투구수 100개 / 5-8패	
승	5월23일	밀워키(밀러파크)	7.1이닝 6피안타 1피홈런2실점 2볼넷 4탈삼진투구수 108개 / 9-2승	

· 23일 현재까지 성적: 10경기 5승 2패 평균자책점 3.30, 62이닝 탈삼진 60개

그래프 같은 야구수를 나타냄

연합뉴스

야구에서 투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 등 여러가지 척도가 있지만 감독이 가장 바라는 이상형은 ‘이닝 이터’일 것이다. 연간 162경기의 대장정을 치르는 메이저리그에서 선발투수가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 그만큼 볼넷투수들의 힘을 비축할 수 있어 마운드 운용에 솜씨가 트이기 때문이다.

5회를 공 4개만으로 막은 류현진은 6회는 공 12개로 넘겼고 7회에는 6개만으로 삼자범퇴하는 효율적인 투구를 했다. 어느정도 점수 차가 벌어져 자 실점에 대한 큰 부담없이 맞혀 잡

는 피칭으로 투구수를 대폭 줄였다. 애틀랜타전 부진을 털고 가장 긴 이닝을 던진 류현진이 밀워키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이닝 사냥’에 나서지 귀추가 주목된다.

류현진은 경기 후 클럽하우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5승 성공에 굉장히 만족한다. 맞춰 잡으려고 던진 초구를 운용계도 상대 선수들이 많이 쳤고 또 (동료들의) 좋은 수비가 많이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류현진은 29일 오전 11시 10분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LA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이용대·고성현 독일 완파 한국 준결승 진출 이끌어 배드민턴 혼합단체 선수권

배드민턴 남자복식 2위인 이용대(삼성전기)-고성현(김천시청)이 제 13회 세계 혼합단체 선수권대회에서 양승으로 한국의 준결승 진출을 주도했다.

이용대-고성현 조는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푸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독일과의 대회 8강전 3경기 남자복식에서 일고 킨더파터-요하네스 쇠틀러 조를 2-0(21-13 21-10)으로 격파하고, 한국의 3-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한국은 고성현-김하나(삼성전기)가 나선 혼합복식, 이동근(요넥스)이 출전한 남자단식에서 1시간가량 접전을 펼친 끝에 각각 2-1로 신승을 거뒀다.

이어 출격한 이용대-고성현은 한수 위의 경기력으로 한국의 ‘에이스’임을 증명했다. 한국이 2-0으로 앞선 채 나선 이용대-고성현은 킨더파터-쇠틀러에 초반부터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으면서 29분만에 승리를 결정지었다.

스매시 점수에서 25-10으로 킨더파터-쇠틀러를 압도하며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

연합뉴스

한화 이종범 코치, 만루에서 삼진 당한 최희섭에 “고맙다”

① 덕아웃 말말말

▲예비군입니다=윤석민, 무등 경기장을 찾은 유승안 경향철 감독이 자신의 팀에 들어오라고 농담을 하자.

▲고맙다=한화 이종범 주루코치가 최희섭을 보고, KIA는 1-3으로 뒤지던 22일 7회 1사 만루에서 최희섭이 높은 볼에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역전 기회를 놓쳤다.

▲시합 때도 그렇게 처라=김주형의 타격훈련을 지켜보던 이순철 수석코치, 프리 베팅 때는 좋은 타구를 날리는데 타석에서는 연습과 다른 모습이라면서.

▲말려 죽이려나봐=팜 펠릭인 상태로 덕아웃에 들어오던 김상훈, 날씨가 너무 덥다면서.

▲오늘은 말에서 노셨다고 하네=한화 김응용 감독을 만나고 온 선동열 감독, 무등산을 다녀오셨다는 스승님이 예전같이 많이는 못 올라가겠

다고 하셨다면서.

▲내 것도 아는데=외야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들어오던 양현종, 훈련에 사용한 커다란 짐볼을 들고 그대로 라커룸으로 향하다. 더워서 정신이 없다면서.

▲곰뽕이라고 하시잖아=느린 선수들이 많아서 한화는 작전을 쓸 수 없었던 김성환 수석 코치, 팀에 느린 선수들이 많아서 김응용 감독이 곰뽕이라고 하신다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